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홍계월전

작자 미상 · 여성 영웅소설·국문 고전소설
2025년 6월 고1 · G202506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506H1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남관의 긴급 장계 → 공적 지위를 든 신하들

1



2



3



남관의 긴급 장계 → 추천과 천자의 망설임 → 공적 지위를 든 신하들

1. 남관의 긴급 장계 [1] [2] [3]

남관장은 적장과 병력 규모, 점령 상황을 밝히며 자신만으로 방어하기 어렵다고 보고한다. 명장 파견 요청이 조정의 의논을 시작하게 한다.

2. 추천과 천자의 망설임 [4] [5] [6] [7]

정영태는 평국을 보내자고 하나 천자는 규중에 머무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망설인다.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무능이 아니라 성별과 생활 처지이다.

3. 공적 지위를 든 신하들 [8] [9]

신하들은 이름이 조야에 있고 작록도 남아 있으므로 소환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. 규중의 일상이 신하라는 공적 지위를 없애지는 않는다는 논리이다.

암기 그림 2 · 규중의 장기와 바둑 → 명을 받고 전령을 쓰다

4



5



6



규중의 장기와 바둑 → 조복으로 갈아입다 → 명을 받고 전령을 쓰다

4. 규중의 장기와 바둑 [10]

평국은 시녀들과 장기·바둑으로 지내고 있다. 능력을 활용할 공적 자리가 제한된 상태이지 군사적 재능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.

5. 조복으로 갈아입다 [11]

소환 명령을 들은 평국은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어 나아간다. 이미 알려진 성별을 속이기보다는 조정의 신하 역할로 나아가는 행동이다.

6. 명을 받고 전령을 쓰다 [12] [13] [14] [15] [16]

천자는 국난 해결을 명하고 평국은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한다. 원수가 된 계월은 친히 전령을 써 보국을 중군으로 부르며 공적 지휘를 실행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장계

뜻 지방 관리나 장수가 임금에게 올리는 보고 글.

배경 남관이 위협의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수단이다.

작품 속 쓰임 남관이 위협의 규모를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는 수단이다.



2. 규중

뜻 여성이 거처하는 집 안의 공간.

배경 천자의 망설임과 평국의 일상을 통해 사회 활동의 제약을 읽을 수 있다.

작품 속 쓰임 천자의 망설임과 평국의 일상을 통해 사회 활동의 제약을 읽을 수 있다.



3. 조복

뜻 관원이 조정에 나아갈 때 입는 예복.

배경 평국이 공적 역할로 나아감을 보여 주며 다시 성별을 속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작품 속 쓰임 평국이 공적 역할로 나아감을 보여 주며 다시 성별을 속인다고 단정할 수 없다.



4. 작록

뜻 관직·직위와 그에 따라 받는 녹봉.

배경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평국을 부를 논거이다.

작품 속 쓰임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평국을 부를 논거이다.



5. 대원수

뜻 군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높은 장수.

배경 계월이 맡는 지휘자의 자리로, 보국도 그 명을 받는다.

작품 속 쓰임 계월이 맡는 지휘자의 자리로, 보국도 그 명을 받는다.



6. 중군

뜻 중앙 군대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장수.

배경 이 발췌에서는 보국의 직책을 가리킨다. 원수의 지휘를 받는다.

작품 속 쓰임 이 발췌에서는 보국의 직책을 가리킨다. 원수의 지휘를 받는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? ㄱ. 여공이 보국의 출정을 재촉한다. ㄴ. 남관의 장계가 조정에 도착한다. ㄷ. 평국이 조정에 나아간다. ㅁ. 보국이 운평과 운경을 쓰러뜨린다. ㄹ. 계월이 보국을 구하고 꾸짖는다.

① ㄴ→ㄱ→ㄷ→ㅁ→ㄹ

② ㄴ→ㄷ→ㅁ→ㄱ→ㄹ

③ ㄷ→ㄴ→ㄱ→ㅁ→ㄹ

④ ㄴ→ㄷ→ㄱ→ㅁ→ㄹ

⑤ ㄴ→ㄷ→ㄱ→ㄹ→ㅁ

2.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남관장은 「장수 천여 명과 군사 십만을 거느리고」[2]라 적어 반란군의 규모를 밝히며 도움을 청하였다.

② 여공은 계월의 지시가 지나치다고 보아 보국을 두둔하였다.

③ 천자는 「내가 덕이 없어」[12]라 하여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다.

④ 평국은 「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고자 합니다」[14]라 하여 은혜에 견주어 자신을 낮추었다.

⑤ 보국은 「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」[16] 부모께 그 일을 여쭈었다.

3. [9]의 신하들 발언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작록(爵祿)을 거두지 않았으니」[9]는 평국이 이미 벼슬을 내놓았음을 확인해 준다.

② 「이름이 조야(朝野)에 있고」[9]는 평국의 이름이 저잣거리에 오르내림을 나무라는 말이다.

③ 「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거리끼겠습니까?」[9]는 규중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.

④ 작록이 남아 있으므로 새 관직을 받은 뒤에만 출정할 수 있다는 절차를 강조한다.

⑤ 규중에 있어도 여전히 신하이므로 부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.

4.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「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?」[7]처럼 서술자가 직접 끼어들어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.

② 「추구월 갑자 일에 행군했다」[24]의 날짜를 들어 비현실적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.

③ 인물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고조하고 있다.

④ 「동에 번쩍하더니 어느 새 서쪽에」[37]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과를 밝히고 있다.

⑤ 많은 적을 한 칼에 쓰러뜨리는 묘사는 실제 전과를 정확히 계수해 역사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심을 둔다.

5. 윗글의 갈래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인물의 지휘와 전공을 다루되 외부 관찰만 제시하여 내면의 변화는 독자의 추측에 맡긴다.

② [앞줄거리]의 「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」에서 보듯 여성 영웅 소설의 성격을 지닌다.

③ 「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」[2]에서 보듯 전쟁과 무공을 다루는 군담 소설의 성격을 지닌다.

④ 「호령이 서릿발 같았다」[27]처럼 직유를 쓴 국문 소설이다.

⑤ 「분함을 이기지 못하여」[16]처럼 서술자가 인물의 속을 직접 알려 준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